

# 강진군, 새청무·강대찬 벼 재배기술 교육 열어

강진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고품질 벼 재배기술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강대찬벼와 강진의 대표품종인 새청무벼를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육성해 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청무벼와 강대찬벼 개발자인 전남농업기술원 신서호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신 박사는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 두 품종 모두 적기이앙, 과학적 적량시비, 파종량 준수, 정밀이앙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 어느 품종보다 강대찬벼 재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추청’, 강원도는 ‘오대’, 전북은 ‘신동진’, 충청도는 ‘삼광’ 품종이 각 도를 대표하고 있었으나, 최근 새청무 품종이 강진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전남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았다.

전남에서 새청무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넓은 신동진벼를 대체하기 위해 강대찬을 육성했다. 신동진과 비교할 때 300평당 쌀 수량이 545kg으로 비슷하지만, 도정률은 70%로 신동진 도정률 66%에 비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밥맛의 지표가 되는 ‘도요값’ 역시 신동진은 68.7로 나타났지만 강대찬은 70.4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쓰러짐과 수발아가 거의 없는 장점으로 신동진 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진군은 강대찬 벼를 새청무에 이어 제2의 군 대표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새청무와 강대찬을 2023년 공공비축미곡 수매 품종 선정했다. 강대찬쌀 브랜드를 개발해 지난 2022년부터 농가들과 함께 실증·시범 재배하는 등 최고 품질 원료곡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



강진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고품질 벼 재배기술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강대찬벼와 강진의 대표품종인 새청무벼를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육성해 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 제공

목포, 수돗물 절약 적극 추진

목포시가 가뭄 극복을 위한 물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물 절약한 수용가에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현재 목포시의 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20.6%(2023년 3월 3일 기준)정도로 200일 이상 가뭄이 지속되는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가뭄이 지속 될 경우 제한 급수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최근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상동행정복지센터 주변까지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물 절약 수용가에게 실질적인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시책을 추진한다. 이달 중 ‘목포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실제 3월 중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4월 수도 요금부터 한시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10%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당월 사용량이 0이거나 이사 정산, 옥내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성태 기자

## 영암군, 2023 혁신 시책 보고회 개최

영암군은 최근 군청 남산실에서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혁신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역 경쟁력 향상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5개 실과소 96개 팀에서 101개의 혁신 추진과제를 발굴·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전 실과소가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의된 주요 혁신과제로는 ▲찾아가는 군수 결재 시스템 ▲청년정책플랫폼 구축 ▲일자리사업 성과분석 시스템 도입 ▲썩먹보 영암투어 ▲영암 왕인 씨름대회 개최 ▲미세먼지 안심 쉼터 설치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지원 ▲영암 농특산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홍보 추진 ▲친환경 도시 목조화 사업 ▲로드킬 처리 업무 일원화 추진 ▲공사정보 제공 통합시스템

구축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공작소 운영 등이 있었으며, 내부 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혁신 방안부터 실과소 협업 사업,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군은 발굴된 시책들을 군정 혁신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종합발전 세부 실행계획으로 적극 활용해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23년을 혁신 원년의 해로 삼고 새로운 영암, 군민이 만드는 영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 기대한다. 영암군이 앞장서 지방행정 혁신을 일궈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보고회 이후 성공적 혁신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최종민 기자

## 사계절 꽃피는 신안, 수목 유지관리 성과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을 목표로 각 섬 별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점목해 특색 있는 바다 위 꽃정원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산림·도시숲·정원분야의 훌륭한 사업 성과를 이루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육지에 비해 토양이 척박하고 염분을 머금은 바람이 많이 불어 수목과 꽃을 심고 가꾸기엔 다른

지역에 비해 3~4배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사계절 꽃과 숲이 울창한 신안군의 특별한 수목 유지 관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자은 무지엄파크와 입자 흥매화정원은 강한 바람과 모래 알갱이가 날려 수목 활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었으나 토양을 치환하고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압해도 천사대교의 애기동백길은 수목이 바람에 의해서 건조해와 동해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C’자형 방풍막이 설치됐으며 육지와 다른 이색적인 가로수길 경관까지 연출돼 관광객의 호응 또한 얻고 있다.

이 외에도 미생물 시비작업, 읍면별 관수팀 운영, 병충해 방제, 제조작업 등 신안군만의 특별한 수목 유지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장홍근 기자

## 함평, 제3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입교식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가 최근 제3기 입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김민주 함평군농어귀촌협의회장과 입교생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3기 입교생은 귀농·귀촌을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시민 30명 19세대이다.

이들은 향후 9개월 동안 함평에 머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을 받게 된다.

입교자들에게는 시설하우스 및 개인 텃밭이 배정되며, 기초농업이론, 농촌문화생활 교육 등 다양한 이론 및 실습교육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전문 영농기술 전수를 위한 멘토·멘티 매칭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 중심의 맞춤형 현장 실습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 무안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나서

무안군(군수 김산)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지방세 환급은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서 발생하는데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금 정리를 위해 지난달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군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무안군

세무회계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 총액 후 잔액을 환급하며, 체납액이 지방세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체납세액에 충당 처리된다.

함경훈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투기 소음에서 지켜주세요



황토와 갯벌, 생명의 땅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